

Kwan Jin Wook

나의 현실

나의 생활

그 일상으로부터의 변혁

로
자
연세고보서교회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신유정·최인아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총여학생회장 후보

신 유 정 (법학3)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최 인 아 (국문3)



처음글

- 4. 출사표
- 6. 추천의 글
- 8. 남학우들의 바램글
- 9. 늑대(?)의 글
- 10. 진단! 연세여성

우리들의 총여학생회

- 13. 여학생회는?

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

- 18. 성에 관한 이야기 송우
- 20. 여학생 취업 현황을 진단한다.
- 22. 여성노동은 착취의 대상(?)
- 24. 고용평등 파수꾼(광고)

민중과 함께 합시다.

- 25. 사회속의 나

읽을거리

- 그 여자가 사는 법(?) 29.
- 생활공트 31

알아봅시다.

- 유관순 의사(?) 34.
- 탁아문제 36.
- 통일, 민주노총 39.
- 여성운동사 41.
- 여성운동의 이념 43.

쉬어가는 글

- 이불을 꿰매면서(시) 47.

우리들의 생각

- 성정치의 정체 49.
- 내가 본 성정치 문화제 56.

페미니즘 문학, 영화

- 문학 58.
- 영화 60.

큰 글

- 62. 정책과 공약(만화)

선거운동원 한 마디

- 66. 물결의 일렁임

신유정 · 최인아 출사표

비는 대지를 적시고 바람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가을은 바람에 묻혀 저 멀리로 사라져 버리고
겨울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는 손길이 바빠지고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발그레 상기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1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1년을 계획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나의 현실, 나의 생활 그 일상으로 부터의 변혁
어려운 구조로 연세인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운동의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신유정 · 최인아 출사표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남성들의 삶을 재단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든 자리에서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소외에서
남성이기 때문에 강요받는 억압 속에서
이제 그 소외와 억압을 깨고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제 9대 총학생회의 시작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 9대 총학생회 임후보자
신유정 · 최인아

연세 여학우들의 진정한 벗이 되기를

내가 연세대 여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93년부터이다.
유정이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이때이며, 우리가 처음으로 대면했던
곳은 뽕밭이라는 작은 기지촌 마을이었다.

아무진 작은 체구에, 콧끝에 걸린 안경 속으로는 장난끼가
어렸는가 하면 진지함이 빛나던 그런 인상으로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기지촌 활동이라는 새로운 인연은 자신의 삶이 아니었던 부분을
자신의 인생 안으로 끄집어 넣는, 그러나 그러면서 수없이 우리
조국의 현실과 여성의 현실을 되뇌어 보아야만 하는 활동이다.

고작 1학년생이던 유정이는 저벅 저벅 제 앞에 펼쳐지는 기지촌의
광경을 막연한 감상으로만 받아 들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눈물을 가슴 속으로 흘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 이후로도 나는 유정이를 자주 볼 수가 있었다.

3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말이다.

대부분이 그랬다.

한번의 기화로 충분히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는

어쉬움이 남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유정이는 매해 그 아무진
체구를 들이 밀면서 기지촌 여성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또는 자신의
언니로 받아 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기적인 반미의 도구나, 감상적인 단상, 또는 사업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는 기지촌을 잘 알지 못한다.

아니 그곳의 사람들과 이웃이 될 수 없다.

단순히,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러 젊은이들의 걸음이 해마다 뽕밭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같은 시각으로써 나와 내 친구, 언니, 어머니들이 이겨내고

살아왔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성 문제로, 또한 같은

여성이라는 아픔으로 서로의 삶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윤금씨 3주기 추모제에서 유정이를 만났다.

수줍게 "언니, 저 참여 선거 나가요." 라면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유정이를 보면서 나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며 생각해 보았다.

"그래, 유정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유정이가 잘 하리라고 믿는다.

뽕밭로 실어 나르던 관심과 사랑으로 연세 여학우들의 벗이 되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참 식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닐 유정이의 작달만한 체구를 떠올려 본다.

-- 새움터 준비 간사 엄 상미 --



오천 여학우만이 아니라, 이만 연세를 생각하는 총여학생회가 되기 위해...

남학우들의 바램글 (남학우 연서판에 적힌 내용입니다)

- 여성이 앞장 서서 남자가 함께 변화하는 사회를... - 행정 권기환
- 함께 아우르는 총여! - 생화학 최영재
- 여성만의 여성 운동 혹은 총여 운동이 아닌, 민중과 함께 하는 운동을 기대합니다.
- 문정 우경호
- 남성들이 결코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 금속 윤일환
-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혁을 이번에는 꼭... - 경영 송상철
- 남학생 자원봉사도 모집하세요. - 신학 이종도
- 여성 운동이 다른 부문 운동들과 연대하는 장을 마련하길. - 경제 이준호
- 이번 경선을 통해 더 깊은 고민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꼭 이기세요...
- 국문 송윤서
-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를 추진, 노력! - 경제 이일래
- 논지당을 부분적으로 개방해 주세요. - 정의 김용준
- 남학우들에게 좀더 개방적인 자세를... - 행정 김병곤
- 피해자 입장이 아닌,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운동합시다. - 정의 이태희
- 간 큰 남자, 매 맞는 아내가 없는 세상 건설! - 경영 문충실
- 진정한 연세 여학우의 대변인으로서 선거 후에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시오.
- 경영 정진성
- 여학우들의 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모순과 깊은 연관이 있겠죠. - 중문 장형준
- 열린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힘내시고! - 국문 황인종
- 연세대 내의 여성 문제 철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 경제 강태규
- 요새같이 정치적 허무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열심히 뛰는 그대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영문 김도훈
- 여성해방은 곧 남성해방입니다. - 행정 이창현

늑대(?)가 바라본 총여학생회

난 단무지로 알려진 공대 1학년생이야.

난 그동안 아주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지. 그러다가 선거철이 왔어.

그리고 난 1학기때부터 연세여성 편집일을 했던 연유로 총여 선거에 참여하기로 했어.

왜 늑대가 총여선거를 돕냐구? 글썄... ..

난 그냥 총여 누나들이 좋았어. 또 일반적인 학생회 선거가 싫어서기도 했구. 정치판처럼 파벌을 갈라 싸우는 모습이 정말 싫었어. 하지만 순수하게 자신들의 일을 해가는 총여는 달랐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총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 그런데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더군.

1학기때부터 들었던 총여 불가론을 또 듣게 된거야. "총여는 안돼. 여자들만 모이면 망해. 야! 동아리나 열심히 해라. 총학선거하자." 등등의 말들이 날 괴롭혔어. 그래도 난 초지일관했고 지금은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지.

내가 본 총여활동은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안나. 단지 내 시각을 바꾸게 된 누나들의 행동이 기억날 뿐이야. 어느 파벌도 아니다 보니 모든 파벌의 '적 아닌 적'이 되면서도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좋았어. 거기다가 항상 즐겁게 활동하는 누나들이 내 피로를 풀어 주었어. 왜냐구? 학생회 일을 하는 곳이라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억압(?)이 총여에서는 없었거든.

예구 예구, 자료집 마감을 빨리 하라는군. 그래! 내 정열을 바치고 있는 총여선거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거야.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되길 빌며..

- 산시스 95 현호



진단! 연세여성

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

여학우 취업.....

여학생회의 존재근거와 총여학생회

1. 여학생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학생회의 존재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매년 총여학생회 및 단위 여학생회의 선거 때에 제기되는 물음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여성문제는 그 사회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뿌리 깊은 봉건주의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고민과 더불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게 된다. 모든 사회운동은 억압의 대상이 되는 운동의 주체 세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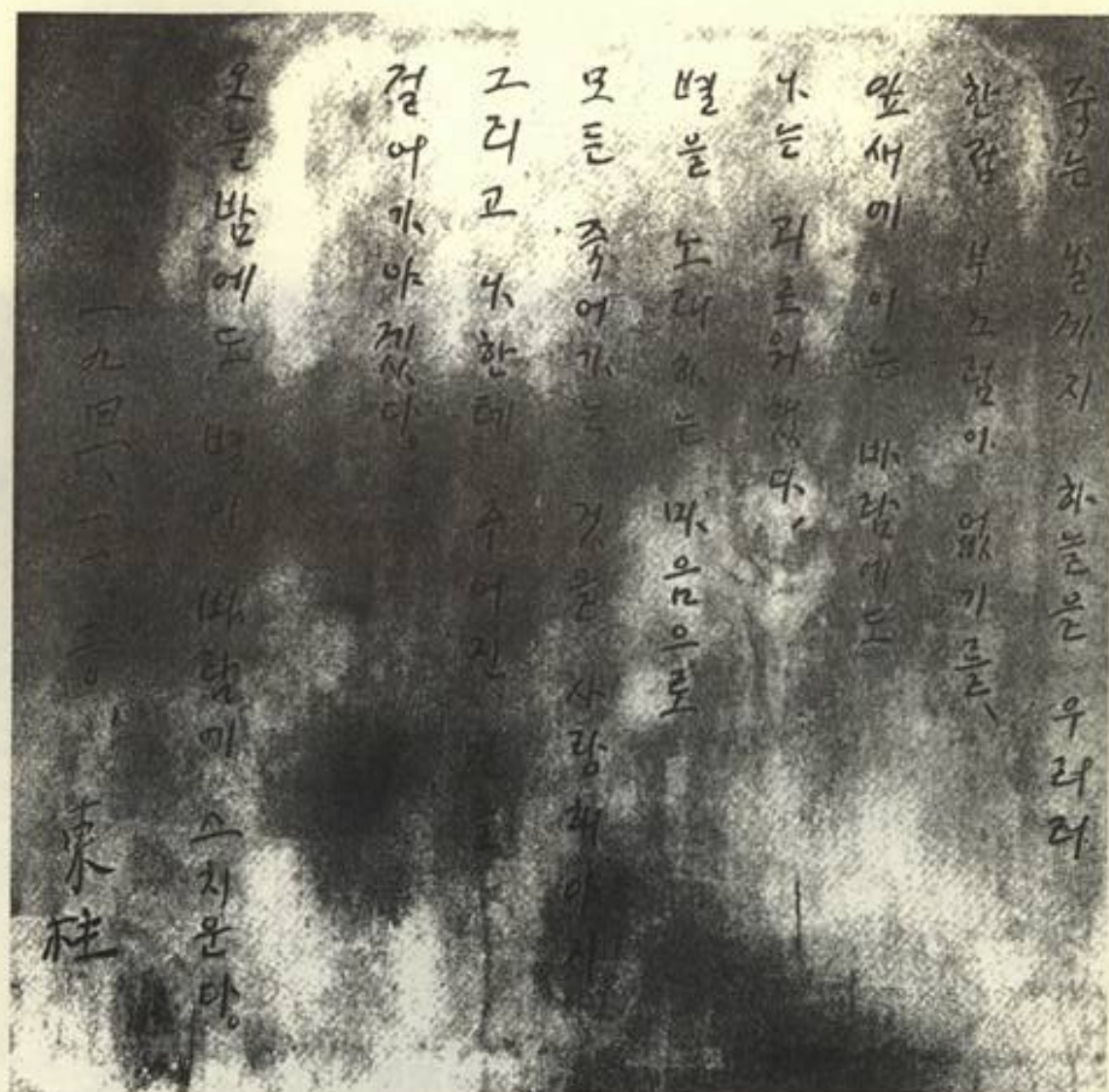
특히나 이 사회에서 성차별이라는 억압의 문제를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학생회는 바로 이러한 두가지 원칙, 즉 문제해결의 단위의 필요성과 여성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을 받아 안아 여학생문제를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독립적 단위로서의 존재근거를 가지게 된다.

2.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의 여성국으로 존재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총여학생회라는 독립적 단위가 존재해야 하는지, 총학생회의 여성국 등으로 존재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총학생회의 여성국 등으로 있을 경우에는 물론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여학우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학우와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가 맞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성문제, 혹은 성문제는 다른 제반문제의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하는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활동범위가 학내문제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것들을 요구받아 왔고 또한 그렇게 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학생회가 언제나 여성문제, 혹은 성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국 등이 총학생회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총여학생회로 있을 경우에서 살펴보자. 여성의 입장에서 제반문제의 하나로 여성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활에서 그 어느 한 부분도 여성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없으며, 이는 결국 내 전체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남성중심의 문화가 갖는 억압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데 있어 안정된 하나의 독립 단위가 된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그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실감하고 있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그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또한 이를 남학우들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의 성과와 한계

총여학생회는 올해로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 1 대 총여학생회가 1988년에 세워지면서 현재는 8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 9대를 준비하려고 한다. 이에 지금까지의 역대 총여학생회의 활동들을 9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흡하지만 간단하게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제 1 대와 제 2 대 총여학생회

1988년에 일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통해 제 1 대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이는 그야말로 연세대학교에서 여학생운동의 불꽃을 틔운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87년 대투쟁을 이어받아 88, 89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온국민의 열망과 함께 대학가에도 투쟁의 흐름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대와 2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회의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받아안기에는 그 만큼의 역량도 안 되었던 것도 있지만 사회 상황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1대 총여학생회장은 88년에 '북한여성 바로알기'라는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구속, 수감되었을 정도였다.

제 3 대 총여학생회

1990년이 되면서 3대 총여학생회가 가장 중심으로 고민한 것은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였다. 이를 위해서 총여학생회는 '단대여학생회 강화'의 기치를 내세웠다. 달마다 특정 단대를 지정하여 그 단대 여학생들과 만나는 계기로 강연회 등을 잡아 총여학생회와 단대 여학우들을 보다 자주 만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3월은 문대 여학우 만나는 달, 4월은 이과대 여학우 만나는 달 등으로 그 달에 맞게 강연회등을 진행시켰다. 이는 그 호응도가 높아 그 성과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 행사로 인해 많은 여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논의의 기본이 되었던 '단대 대표자 연석회의'는 여학생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단대회장단이나 집행부 중에서 여학생이 대표자로 나와 참여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 논의의 수준이 높지 못했다.

제 4 대 총여학생회

1991년에는 3대 총여학생회가 대중적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단대 여학생회 등과 같은 단위를 건설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기반하여 각 과의 또래 모임을 강화하는 것을 기치로 삼았다. 여학생들이 끼리끼리의 또래 집단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과 내에서의 여학생 소모임을 건설해 내고자 했다. 이는 단대보다 과라는 보다 가까운 단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에 그 성과가 있다. 그러나 많은 과를 상대하다보니 역량의 부족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몇 개 과를 집중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제 5 대 총여학생회

1992년에 5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과 함께 여학우들만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많은 행사들을 제안하게 되었다. 최초로 대동계에서 '여학우 한마당'을 제기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4대 총여학생회에서부터 있었던 '여성학교'를 지속시켰다. 또한 '영상학교'를 열어 영상매체를 통해 여성문제를 학내에 널리 알리고 그 고민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도 매우 좋은 문제제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동안 이화여대 등과 같은 몇 개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기지촌 활동을 최초로 공개 모집하여 시작했으며 '김보은 사건' 혹은 '보은, 진관사건' - 의붓아버지에게 수년간 성폭행당한 김 보은양이 그 남자 친구인 진관군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더이상 성폭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다 시비끝에 말리는 과정에서 진관군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 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을 학내에 알려 나갔다. 그러나 아직 단대 여학생회나 과 여학생회의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

제 6 대 총여학생회

1993년 6대 총여학생회는 5대에서 제기한 다양한 형식의 행사들을 안착화시켰다. 여성학교, 영상학교, 여학우한마당 등을 계속 진행시켰다. 또한 단위 고민을 함께 하면서 많은 단대 여학우들을 만났다. 그것이 여학생 모임으로 꾸러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상대 여학생모임 '야시'가 만들어졌으며 문대에는 과 단위 여학생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간대, 의대, 교과대 등의 단대 여학우들과의 잦은 교류를 이루어 나갔다. 또한 아카라카 응원단의 곡 중에서 '언더 더 씨'의 가사가 여학우의 성적을 C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항의하여 그 곡을 응원곡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특히 6대 총여학생회는 '윤금이씨 사건' - 동두천 기지촌에서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윤금이씨가 항문에 우산이 꽂히고 자궁에 콜라병이 박힌 채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 을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갔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 기지촌에서의 여성의 억압을 폭로하고 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분노를 미군측에 전달하여 결국 케네스 마클 이병은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제 7 대 총여학생회

1994년 7대 총여학생회는 보다 많은 여학우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면서 그 유명한 '연세여성'을 복간시켰다. '연세여성'은 4대 총여학생회에서 역량의 부족으로 중단되었는데 이를 복간시켜 다시 1호부터 발행하였다. 연세여성의 만화는 많은 연세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이후 '재밋는 연세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여학생휴게실 관리에 힘써 메모판을 통해 여학우와 의사소통하고자 했으며 그밖에도 기존의 행사들을 진행시켜 나갔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내에 성폭력 상담 전화(361-2118)를 개설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6대에서의 단대 여학우들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단위가 와해되기도 했던 한

계를 가지게 되었다.

제 8 대 총여학생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총여학생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를 해 보면 7대까지의 문제의식을 총체화하여 그 기초를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사회 속에서 높아지는 운동'으로 삼아 앞으로의 여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세여성'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내용도 풍부해지고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영상학교와 여성학교를 묶어 '여성문화예술제'로 승격시켜 영화뿐 아니라 연극, 전시물, 일일차집등의 형태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특히나 1학기 내내 성교육특강을 최초로 실시해 이를 정식으로 교양선택과목으로 신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북경 여성대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여대협) 안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낮은 목소리'의 상영과 더불어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집회에 관심있는 연세인들과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기화와 농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에도레'가 최초로 농촌탁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단대 여학생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를 가지지 못해 총여학생회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으며 '여성문화예술제'를 단대와 과 여학생회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성에 관한 이야기 ♀♂

성폭력, 성희롱, 포르노, 성관계, 연애, 혼전순결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상반된 두 가지 말이 있다. 하지만 성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성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을까?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수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회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의식이나 태도, 가치규범, 행동 등을 배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주변의 가족들이 아이에게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물론 친구나 선생님, 학교, TV, 만화, 영화 등을 통해서도 사회를 배운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사회를 알고 적응해가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성역할의 학습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그것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성역할을 배운다. 남자아이는 씩씩하고 자기주장을 잘 표현하며 적극적인 행동이 남자다운 역할임을 알게 되고, 여자아이는 단정하고 얌전하며 수동적인 행동이 여자다운 역할임을 배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성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엔 점잖지 못하고, 사회화 과정 역시 숨겨져 왔다. 그렇게 왜곡된 채로 습득된 성역할이나 관념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인류 문명사회는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를 토대로 결혼과 가족제도를 이끌어왔다. 가부장제 결혼은 이중적 성윤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성은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기능이 중시되며, 또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순결과 정절이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된다. 반면에 남성에게는 외도, 측첩, 매춘과 같은 혼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된다. 부계와 부권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는 곧 가정에서의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게 한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성은 극도로 억압되면서 여성은 자연히 성적 불감증에 길들여져 왔으며 남성은 성적 충동을 자유롭게 발산함으로써 성적 본능이 강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성문화는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성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소는 성의 상품화다. 성의 상품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온 종래의 가부장적 성문화를 심화시키고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켜 여성을 한낱 성상품으로 전락시킨다. 미스 코리아에서 미스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인대회가 늘어

나는 것 역시 여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사회풍조의 일면이라 볼 수 있다. 성산업은 성의 본능적 쾌락과 기교에만 광적으로 몰입하는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성을 조장한다. 여성에게 가학적, 공격적, 폭력적인 성을 강요하고 여성을 성적 노예로 취급하는 행태를 노출한다. 이것은 또한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바로 이러한 여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력은 전에도 있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또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명을 앞서간다는 미국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세계 1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3위를 차지한다. 1990)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무수한 성폭력-성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간뿐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 제작, 판매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사건들만으로도 여성들은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매일 아침에 접하는 신문들이나 TV에서 보도되는 끔찍한 뉴스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포를 배우게 한다.

사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공포는 모든 여성들에게 지켜야 할 시간, 옷입는 방식, 다니는 길 등을 가르치므로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

여학생 취업 현황을 진단한다



S여대 4학년 졸업반인 최양은 평 소 바라던 기업 6군데에 입사원서를 냈다. 그녀는 toEIC이 800점 이상인 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떨어졌다. 그녀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외국인 회사로 눈을 돌려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다. E대 수학과 이양은 입사원서조차 구하기 힘들어 하루에 두세번씩 학교 복지관에 들르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에서 여학생에게 배당되는 원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양은 각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원서를 구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올해는 여학생을 공채할 계획이 없다. 군필자를 우선시 한다." 등의 명목으로 여학우를 박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회사 공채 시험, 공무원 시험, 여군 장교 시험, 교사 순위 고사 등 '실력'으로 겨뤄 이길 수 있는 길을 선택, 토익 대비학원, 순위고사 학원, 고시 학원 등에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맡게

되는 일은 비서직이나 디자인, 전산 인력, 교육 등 특수한 곳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영업 부서에는 15%에 불과했다.

또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금융이나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때문에 대졸 여성의 통계상 취업률 60%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되는 곳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여대생 취업을 여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양질의 젊은 노동력 부족이 예상돼 국가 발전을 위한 마지막 인적 자원으로 여성 인력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여교수의 비율을 살펴보자. 연세 학우들 중 약 27%는 여학우이다. 그런데 이런 여학우의 비율에 비해서 여교수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나마 간호대, 생활과학대의 여교수의 수를 상대적으로 고려한다면 실제 우리 학교 교수 채용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심각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문과대의 경우 여학생의 수가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제 115명 중 단 8명만이 여교수이고 이과대는 103명 중 3명, 사과대는 42명 중 1명, 음대는 33명 중 7명에 불과했다. 또한 상경대, 신과대, 법과대, 공과대에는 여교수가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여교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교 내의 교직원 사이에는 군호봉 인정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면제인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들의 호봉이 한단계 낮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학기 초 여직원회에서 학교 당국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각 일간 신문에 실리면서 여론화 되

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은 착취의 대상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양적 증대가 곧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을 가정주부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취업도 여성에게 무보수, 저임금의 이중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김영삼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완화정책과 유연 노동시장화 정책(신인력정책) 등을 배경으로, 부분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비롯한 여성보호규정의 완화와 폐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별 역할분업 구조를 전제로 단순직이나 비정규직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에 초점을 두는 여성 노동력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여성보호규정의 완화(1) 대신에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조치 및 모성보호 조치의 다양화와 확대, 모성보호 비용 및 육아 지원의 공공부담화, 육아 휴직제도와 신설된 가족간호 휴가 제도의 남녀공통적용 원칙을 표면적으로는 국제노동기준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여성보호 규정의 완화방식의 문제이다.

예컨대 심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여성사용금지직종을 임신부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ILO와 일본법은 모성기능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여성보호완화대신에 추진과제로 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강화조치의 실현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기본계획이 남녀평등과 여성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의 비준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근로여성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호는 국제노동기준에도 없는 보호이므로 완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도 국제노동기준에 규정된 여성의 보호와 평등, 가정생활 원조조치는 국내현실상 아직 실현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과연 그 동안 "보호와 복지의 시대"라 할만한 여성노동정책이 얼마나 실시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녀평등과 여성

보호, 육아지원의 제도적 틀만 존재할 뿐 법의 실효성은 미약하고 제대로 정착되지도 못하였다. 전근대적 노사관계가 여전히 잔재한 채,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낮고 노동조합내의 여성의 역할도 보잘 것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보호규정이 여성고용 기피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가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유급출산휴가, 유급생리휴가를 비롯한 각종 여성보호 규정과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의 실시에 따른 직, 간접비용을 사용자에게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특별보호 규정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되지 않고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와 취업여건 악화는 남녀 모두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공동인식하에 정부 정책의 허실에 대하여 남녀노동자, 여성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대응하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연대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 기본계획이 설정한 완화조치의 대상과 방법은 다음 4가지로 예시된다.

첫째, 현행 근기법은 여성이 특정 직종,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제51조, 시행령 제44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이러한 취업제한의 의미는 감소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임신부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근기법은 "여성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제56조, 제57조) 이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 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용기피 요인이 되고 있"으니 남자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연간 또는 월간 제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는 여성의 휴일, 야간근로(밤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생리휴가를 본인의 청구와는 관계없이 월 1회 유급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으며 모든 여성이 생리 때문에 근로에 지장을 받느냐는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생리현상과는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 또한 여성의 고용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청구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평등 파수꾼을 모집합니다

정부에서는 10월을 고용평 등의 달로 제정하고 1995년을 시행원년으로 발표하였다.
얼마전 한 국외잡지(파이스런 이코노믹 리뷰)는 한국을 아시아 제일의 성차별국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 젊은 여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 라고 논평을 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지위, 특히 고용상의 지위가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다. 이에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여성고용 불평등 현실들을 감시하고 고
발하여 바람직한 대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전국민의 고용평등의식과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고용평등 파수꾼' 을 모집하게 되었다.

〈94년 4월 고용평등감시운동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기업의 고용평등 현황을 모니터
할 광범위한〉 고용평등파수꾼은 추진본부에서 마련한 checklist에 자기 직장내 현실, 경험을 적
거나, 학생이나 일반인들로 구성된 예비 취업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체크하게 된
다. 그러면 이것들을(고용평등 이행정도를) 점수화하여 기업별 평가자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국회, 기업, 정당 등에 고용평등 정책안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고용평등 파수꾼의 가입 절차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전리안, 아이텔 사용자를 ID α 325로, 나우누리에서는 ID 민우통신으로 양식을 보내주세요.
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 전화연락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평등사회를 향한 고용 평등운동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나 2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기꺼이 납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나만의 나 가 아닌, 사회 속의 나 를 생각한다

민중 연대 활동의 의미 기할

여학생회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
과 주변의 작은 일상을 중요시하고
거기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
어 보다 큰 변혁으로 이끌어 내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
은 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나 혼자 잘
살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
롯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중연
대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여학우와
남학우의 따뜻한 마음씨, 남의 고통
을 헤아리고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는
정의감 덕분에 보다 쉽게 서로의 마
음을 열 수 있게 되며, 사회의 구조
적 모순(계급, 민족, 성)을 살으로
체험하게 되는 소중한 장입니다.

매춘여성하면 너무 쉽게 갖는 편견
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끼가 있어서,
본래 질이 안 좋은 여자... 하지만
이런 매춘여성들을 그들의 입장으로
한걸음 다가가 바라보고 특히나 미군
기지라는 특수한 상황-아직도 치외법
권이 인정되는-에서 일어나는 여러가
지 모순들로부터 여성문제, 아이들의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읽어내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 해결의 과정이
라는 인식 전환에 그 의의가 있다.

빈핼

인간이건 동물이건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다. 그러
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생존권마
저 가진 자들의 돈에 의해 좌우된다.
네 식구가 겨우 누울 만큼의, 좁지만





따뜻한 방바닥이 전경과 철거용역
강패에게 위협받는 판자촌. 폐허위
에 뛰어노는 아이들. 사회는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의 가슴은 더 넓고
더 따뜻해지기만 하다. 그들의 싸움
은 빼앗긴 자들이 정당한 몫을 찾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농활

농활동안 여농반으로 활동하면서
여성농민분들이 내외로 얼마나 고생
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눈치와 남편의 권위주
의, 아이들의 교육, 찌들린 농촌현
실과 손이 많이 가야하는 농사일은
모두 그녀들의 몫이고, 그분들은 이
러한 모순을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
이고 있었다. 우리가 농활 가서 처
음 했던 일은 자신을 잊고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부인으로서만 존재
하는 그분들에게 '이름'을 불러드리
는 것이었다.

작은 일에서부터의 변혁, 그것이
9대 총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
이다.

나만의 나를 위한 삶은 쉽다. 그

렇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
람으로서, 더욱이 여성이라는 사실
이 굴레로, 억압으로 작용하여 이중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나
의 삶은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자유
로울 수는 없다. 사회에 대해 부자
유스러운 것은 여학우만이 아니라,
남학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한쪽의 성만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좌우 나란한 저
울과도 같아서 한쪽의 상이 왜곡되
고 억압되어 있을 때는 나머지 다른
한쪽도 왜곡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
문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문제, 계급의 문제, 민족과 분단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든 것
들이 하늘 아래 절반을 차지하는 여
성의 문제와 상통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듯하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
에서 여성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모
든 것들, 그리고 감히 여성과 연관
시키지도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남,
녀 모두에게 얹혀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우리 연세의 여학우, 남학우
모두가 우리의 일, 우리 사회의 일
이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 나가
고자 해야 할 것이다.

정대협(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
주 수요일마다 주관하는 수요집회를 아십니까? 제9대 총
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신유정, 최인아 후보도 역시 이 활동
을 계속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억압과 소외를 감당해야 했던 우리의 어머니, 누이들이 이
제 그들의 젊음을 빼앗긴 채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과거를
그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법(?)

1975년 어느 달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XX라는 성염색체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XY의 염색체를 지닌 남아들과 비교해도 과분할 정도의 기대와 축복 속에 놓이게 되었으니.....

"예고, 내 새끼, 우짜 이리 이쁘게 생겼냐! 첫 딸은 살림 밀천이라 했으니까 야가 우리집 복덩이다. 복덩이여."

그 아이를 안아 본 친할머니의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공주처럼 자라났다. 이 때 이미 그녀의 공주병은 시작되었으니-

그렇게 공주처럼 자라나던 그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공주"라는 지위는 채 5년을 넘기지 못한 채 위태롭게 되었으니. 때는 역사의 80년. 우리 겨레의 가슴에 피멍을 맺히게 만든 5.18 광주항쟁의 해 80년. 그 해는 그 아이에게도 쓰라린 시련을 맛보게 해준 해였다. 80년 그 아이의 생일 바로 전날 그 아이에게 남동생이 생기게 되었다. 그 때 그 아인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실 그녀의 아래엔 두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다. 딸만 둘을 연속으로 생산(?)하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세 번째 아이만은 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라쳤고 영특한 그 아이는 엄마의 이런 바람을 두 손 모아 천주님께 빌었던 것이다.

그 아무도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그저 좋기만 했다. 남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에. 실은 그 아이 엄마의 배가 서서히 불로오기 시작하자 그 아이의 친척 어른들 중 한 분이 그 아이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것이다. '이번에도 또 딸을 낳게 되면 세 아이의 머리를 한데 묶어 공원에 버릴 것이다' 라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때 알고 있었을까? 그 남동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것을.

그 후로 그 아이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과 기대는 그 찌그만 사내아이에게 옮겨졌고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상황에 그 아인 놀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섯살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제집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그 이후로 그 아인 참고 양보하는 법만을 배우게 되었다. 자신의 남동생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들을 배울 때 그 아인 갖고 싶어도 참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또 그 사내아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누나들로부터 빼앗아 오는 법을 배울 때 그 아인 조용히 양보하는 법을 배웠다. 그 아이의 누이 동생이 항상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 울부짖는 반면 그 아인 너무 조용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터득한 "사

는 법"이었으므로, 남동생의 생일날은 항상 그의 친구들과 집안이 북적였지만 그 아이의 생일은 아침에 먹는 미역국 한 그릇이 다였고 가끔은 그마저 없었다. 전날 즉 남동생의 생일날 먹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신의 생일조차 찾지 못하며 그 아이는 그녀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또 한 차례의 시련이 다가왔다.

그녀는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지방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만일 그녀가 아들이었다면 그녀의 어머니 그녀에게 지방국립대 진학을 강요했을까? 자신의 아들에게 항상 큰 꿈을 지나라 말씀하시던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는 결국 지방국립대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를 겨우 마친 후 고집을 피워 다시 대입에 도전 명문 사립 Y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너 하고 싶은대로 하거라. 더이상 너에게 엄마가 바라는 인생을 강요하지 않마."

이제 그녀는 결코 어머니가 믿지 않는다. 외아들에게 시집와서 아들을 낳지 못해 겪어야했던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알게 되었고 바깥일을 하며 힘들어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딸이 남녀차별이 현존하는 사회에서 성차별이 심한 직업보다는 비교적 편안한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길 원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던대로 진학한 그녀는 하지만 행복하지만은 않다. 대학내에서도 역시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가 겪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하지만 그녀는 이제 참고 양보만 하는 쪼그마한 그 아이가 아니다.

생활 콩트

인아의 일기

X월 X일 날씨: 비오다 눈오다 해남....

오늘은 아침부터 억세게 재수 없는 날. 1교시 유세부터 9교시 유세까지 꼭 짜여진 유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학우들과 만날까—의 설렘으로 등교길에 올랐다.

좌석 버스 맨 끝자리에 앉아서 몸을 파 묻어 버리고 유세 생각을 해야지... 하며 머릿 속으론 학우들 생각을 하는데 어디 몸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고단한 몸은 슬금슬금 잠속으로 빠져 드는데...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떠보니, 내 옆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내 다리를 뒤통수까지인양 조심스레 쓰다듬고 있는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바쁜 출근 길에 좌석 버스의 좌석을 차지하지 못한 아저씨들은 그걸 재미있는 구경 낚다는 식으로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였어.



'이걸 어째?

아주 짧은 시간인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냥 자는 척해? 아니면 슬며시 잤다는 생색을 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연세의 5천 여학우와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 가만히 입다물고 있을 수는 있지!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정의의 기사가 나가신다. 으자자자자 개봉박두!!~~~

"어딜 만져, 이 새끼야!"

갑소사, 당황해서 한탄 소리가 그거였어. 큰 소리는 아니지만 모두 알아 들을 수 있는 소리 정도는 됐지. 물론 그 아저씨, 당황한 낯빛이더니 대답은 안하고 들고 있는 신문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어. 자긴 아닌 척 왕무시야. 옆에서 구경하던 아저씨들은 더 재미있는 구경이 난 듯 더 흥미로운 얼굴이 되고.... 여기서 그만두면 정의의 기사가 아니지? 한번 더 힘차게 물고 가자.

으자자자자...

"이거 성희롱인가 아시죠? 성희롱 특별법에 의하면, 이런 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도 물론 모르지만 아무튼 맞는 소리 같잖아. 그리고 올 초 성교육 특강에서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그 아저씨 그냥 서둘러 내리던데. 그러길래 아침 댓 바람부터 낮부끄러울 일은 왜 하느냐고? 나 참 이해가 안돼서...

아무래도 아침의 한판 승부는 나의 KO승인것 같지? 근데 왜 오늘 억세게 재수가 없는 날이냐고?

진짜 날 슬프게 한 사건은 강의실에서 있었어.

학우들과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나의 생활 나의 현실, 그 일상으로부터의 변혁된 삶을 이야기하려고 강의실에 들어갔지. 매일 매일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만나는데도 학우들 앞에만 서면 당황스럽고 떨리고 어색한 것 있지? 내가 오늘 2교시에 들어간 강의실은 300명 정도가 듣는 커다란 강의실이었어. 거기서 사건이 터진거야.

그 강사 선생님은 잠깐 공약 설명을 하고 나오려는 날 붙잡아 세우더니 질문할 것 있으면 하래. 어느 남학우가 노래해 보라고 시키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다음에요 하고 넘겼다. 물론 속으로는 내가 5천 여학우와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노래나 부르러 온 사람이냐고 되쏘아 주고 싶었지만 때가 때이니 만큼 남녀의 대립 전선을 긋지 말고 차분하게 넘겨야 하잖아?

그랬더니 다음 질문은 더 가관인거 있지? 글썽 나보고 남자 친구가 있냐고 그러는거야?

그냥 별다른 내색 없이 쉽게 넘겨 버렸지만 나는 그때 울고 싶었어.

뭐 그런 말에 울고 싶냐고?

참 이상하지?

나는 그 순간에 오늘 아침에 나의 다리를 자신의 금송아지인양 쓰다듬고 있던 그 기분 나쁜 아저씨와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의 사생활을 묻는 그 학우가 똑같이 느껴졌어. (이 이야기를 본다면 그 아저씨와 남학우 중에서 누가 더 화를 낼까?)

나를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타자화된 그저 호기심나고 대상화된 하나의 객체로 나를 바라 본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났어. 글썽... 나는 아침의 아저씨보다는 남학우의 태도에 더 슬펐다.

나는 그래도 2만 연세가 함께하는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그 학우는 단대 학생회장 후보나, 총학생회장 후보가 나와서 인사하는데도 노래해봐요, 애인있어요?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듯이 그렇게 쉽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게 바로 여학생 운동의 피해의식이라고?

과연 그럴까?



유관순 의사(?) 안중근 오빠(?)



올해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가 돋보인 한 해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선정한 독립유공자는 7천 9백 21명. 그 중에 여성유공자는 단지 1백 14명일뿐이다. 이로부터 독립운동은 남성의 전유물인양 평가되었고 그나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관순도 누나라 불리우고 있다.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처럼 그녀는 옥고 중에 죽은 당당한 '의사'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유관순 의사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알아봅시다!
정책국이 준비했습니다.

탁아이야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탁아문제가 자연스럽게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탁아는 전적으로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중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밖에서는 남편과 똑같은 시간만큼 일하고, 집안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과연 여성은 나약하므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여러가지 가사부담 중에서 다른 부분은 모두 가전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이기르기이다. 기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따라서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아이기르기에 있어서는, 여성들은 옛날과 별다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업주부의 상황을 살펴보자. 요즘 자녀의 수를 한두명으로 제한하여 그 한두 자녀에 거는 기대가 커지면서 자녀교육담당자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교육의 유경험자인 주위 친척들의 지혜로부터 격리된 채, 아동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무철학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요즈음 아이들은 형제자매도 없이 매일 학원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아동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고, 아동교육에 관한 지식도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아이기르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무지한 부모들에 비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긴다고 해서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한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 나은 지식과 경험으로 대부분의 부모들보다 아이들을 더 잘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자녀들 모두 탁아소에서 교육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탁아받아야 할 아이들의 숫자는 모두 100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94년 현재 15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탁아소에 대한 국가의 양적, 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탁아소와 탁아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일테고, 질적인 측면으로는 탁아시설에 대한 지원, 탁아교사에 대한 재교육,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법적인 측면을 보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약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어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 두지 않아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탁아소설치규정에도 문제점도 있다. 현재는 탁아소 설치기준이 '여성 $\times \times$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성들은 자식을 직장탁아소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일까? 남성들도 당연히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결혼 후 5년 이내의 사람 $\times \times$ 명 이상' 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는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출생 후 1년 이내에는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과 직장 내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서 거의 휴가를 갖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남성들은 안 가는데 여성들만 가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회사에 덜 기여를 한다는 시각 등으로 인해 휴가를 잘 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兩性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출산 이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엄마가 출산 및 육아휴가를 통해 아이들 기르고, 그후 6개월 동안은 아빠가 육아휴가 기간 동안 기르고, 생후 1년부터는 보육교사에 의해 자라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런 노력과 더불어 부모 각자가 월차휴가 동안 자신의 아이가 있는 탁아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도 강화될 것이고 보육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교육에 대한 지식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양육이 엄마만의 책임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부모 모두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아이는 여자 혼자 낳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 기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남성들도 당연히 아이기르기에 대해서 절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곤 하는 남성들, 여성들이 많은 듯하다.

인간은 남에게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는

힘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또한, 아이기르기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위에서 언급했던 국가의 양적, 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의 지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은 훌륭한 시설에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서 좀더 쾌활한 인간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통일 이야기

여러분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례 선거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 운동권의 한 정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지겨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통일, 통일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일단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도 나의 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첫째, 휴전선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휴전선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것이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둘째,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려니 거기에 쓰이는 방위비는 엄청납니다. 남한 정부는 해마다 10조가 넘는 돈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우리의 교육재정에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등록금이 매년 이렇게 비싸지지는 않을텐데요.

셋째, 우리 땅덩이가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 우리 땅에서 나는 자원도 쓰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남한의 식량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물물교환처럼 나눠서 쓰기만해도 외국에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넷째, 우리나라의 국시는 아직도 반공! 제 목소리를 내려는 많은 사람들도 빨갱이라는 한마디면 자신의 권리 주장도 국가전복에 관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50년이나 헤어져 살아오면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상당히 다른 체제와 문화 등을 저마다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통일을 하자는 것은 무리이겠지요. 같이 통일을 해야하는 우리의 반쪽에 대해 차근차근히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오늘 우리의 반쪽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해볼까요?

문제) 북한에서는 동성동본간의 결혼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 물래들 한다:북한에서는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낳은 봉건 잔재로 본다. 참고로 족보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어, 그래? 북한편 중에서>

민주노총 이야기

요즘 학교에 붙어 있는 플랭카드나 선거기간 중에 민주노총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11월 11일 민주노총이 건설되기 때문이겠지요.

민주노총이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인 노동조합들이 전국적으로 뭉친 단결체입니다. 민주노총은 짧게는 87년 노동자 대항쟁 이후, 길게는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노동자들의 기나긴 염원이었습니다. 또한 각 회사의 개별노조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지역, 산업별, 업종별, 그룹별 조직활동과 연대활동의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노총이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노총이라는 것인데 1946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비호아래 결성되어 어용적 생활을 해오면서 유신체제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지지하고, 경총과의 임금합의에서 언제나 경총의 의견만을 모조리 통과시켜주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 한 마디도 내지 않았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건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내며 사회속에서 진짜 주인으로 서는데 민주노총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강령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재권리를 쟁취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실현,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건 개선, 남녀평등 실현, 중소기업과 농업 보호,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실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서는 사회, 졸업후 취업으로 노동자가 되는 우리들이 주인되는 사회 그런 사회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노력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 여성운동사와 그 과제

3.1운동 이후 본격화되었던 우리 나라의 여성운동은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여성단체들이 창립되고 1927년 교육 계몽적 여성단체와 사회주의적 여성단체가 통합한 근우회의 발족으로 고양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여성해방은 반제 반봉건적인 변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깨달음과 중앙집권적인 전국 조직의 결성 및 운영을 경험했던 <근우회>가 30년대 초 해체된 후, 여성 운동은 다시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교육계몽운동으로 분리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여성세력은 일제시대의 행각과 관계없이 <건국부녀동맹>으로 통합되었다가 친일여성세력은 단정파로, 항일여성세력은 비단정파로 분리되어 정치투쟁에 합류한다.

해방 직후의 여성 운동은 일제 잔재와 친일파의 척결, 봉건 잔재의 완전 소탕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의 관점에서 여성억압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타도 대상을 "일제 잔존세력, 모든 봉건 세력"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호하고 사회운동세력을 배제시키고 있었던 미군정에 대해서는 대미 타협노선을 견지하였다.

여성운동의 조직적 결집체인 '부총(조선부녀총동맹)'의 조직적 위상은 조선 공산당의 외곽 대중 조직으로 농촌과 도시의 노동여성, 여성단체가 기반이 되었다.

여성 운동의 시기적 전개는 조선 공산당의 정치 노선에 따라 변화되는데 46년 신전술 채택 이전까지는 여성 대중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여 여성문맹 퇴치운동, 공사창제 폐지운동, 국제부인의 날 기념투쟁, 여성 노동자의 노동투쟁 등으로 고무된 시기였다. 그러나 46년 7월 신전술 채택 이후 여성운동은 미군정의 탄압으로 지도부가 구속되고 서청 등 테러단으로부터의 빈번한 구타, 납치, 학박, 강간 등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위축된다.

48년 2.7 구국 투쟁 이후 모든 운동이 비합법화되며 정치투쟁과 폭력 투쟁이 병행되는데 이 시기 여성운동은 비합법 당조직, 즉 남로당 부녀부로 이루어졌으므로 여성운동 영역은 별개로 구분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진행된 여성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일제 식민지화에서 시작된 반제 반봉건적 여성 운동의 맥을 이어 발전시켰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 여성운동이 어느 계급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가에 따라 부르조아 여성운동과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면, 식민지하의 여성운동은 반제 반봉건적 여성해방 이념에 기반하여

민족해방운동에 합류하는 여성운동과 이를 외면하고 반봉건의 과제만 설정한 여성운동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둘째, 여성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며 여성대중을 조직적으로 포괄되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봉건적 억압이 여성의 활동을 강하게 제약하던 시대였으나 여성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방향 제시 뿐만 아니라 당의 정책, 노동 조합, 농민 조합 등 여타 대중 조직의 협조, 여성 대중에 대한 교사와 여성 운동의 전위로서 자기 역할을 설정한 지식 여성들의 헌신적이고 뛰어난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광범위한 여성 대중운동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

셋째, 여성 억압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정치 세력의 한 부분으로 정치투쟁에 가담하였다. 봉건제도와 일제 잔재의 척결 등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어야 여성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치투쟁에 활동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넷째, 해방 직후 여성 운동은 외세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좌절되었다.

이는 미국에 의한 전후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남한이 편재됨으로써 강제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세력들은 사회변혁세력과 마찬가지로 말미암아 마땅한 대응을 펼치지 못하였다. 48년 제주도에서의 여성운동이 유일하게 여성대중에 의한 반미투쟁으로 고양되었으나 잔인하게 토벌됨으로써, 미군정기 여성운동은 반제 반봉건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과제를 다하지 못하고 무수한 여성들의 희생을 남긴 좌절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좌절은 한국여성운동의 판변화를 초래하였고 일제 식민지에서부터의 여성운동 역사와 반제 반봉건의 맥이 끊어지면서 한국여성운동의 과제가 그 후 여성운동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구에서처럼 여성운동의 독자성이 사회운동과의 조직적, 실천적 분리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공유와 협조관계 속에서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해방 직후 여성운동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여성운동 역사상 완전한 공백기로 남아 있는 해방 직후의 여성 운동을 발굴하고 그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 운동의 이념

자유주의 여권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여권론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나 투쟁의 형태를 지닌 것은 19세기부터이다. 여권론의 성장은 서유럽과 미국의 지적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영국의 울스톤 크래프트, 밀을 포함한 18, 19세기 사상가들이 이들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다.

인간이 타고난 신분에 의해 받게 되는 모든 인위적인 제한의 철폐를 주장하는 계몽사상가들은 자유주의 사상과 융합되어 자유주의 여권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울스톤 크래프트(Woolstonecraft)는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이성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그들 속에 내재해 있는 합리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밀(Mill) 또한 "여성의 예속"에서 여성에게만 자유주의적 관행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법적 권리와 동등한 교육기회 등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유주의 여권론은 여성들이 생물학적 속성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보수주의적 관점을 배격하면서 공중을 재교육시킴으로써 보다 해방되고 동등한 남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으며 성역할의 재사회화 과정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과 직업의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공적 부문에서의 남녀 차별이 줄어들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과 함께 여권론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양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사회,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은 사실상 부르조아식의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관점에서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는 동거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 반해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구조상의 불평등을 받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들이 동등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지 않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계급과 인종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 간의 위계질서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단지 더 많은 여성들이 기존의 정치, 경제 체제에 더 많이 흡입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여권론은 점진적인 개혁만을 주

장할 뿐이며 기존의 사회제도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 관점은 기존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주의 여권론

사회주의 여권론에서는 성의 특성이 어떻게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범주 내에서 발달되고 지속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제도에 여성들을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는 자유주의 여권론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주어진 제도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데 어떤 식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은 여성 억압의 기원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서 찾고 있는, 보다 급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사회주의 여권론의 출현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맑스 주의자들의 관점에 불만을 가진 여성론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전적 맑스주의자들은 남성의 자산과 이윤 축적을 위해 여성노동의 착취를 불가피하게 한 자본주의 제도를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은 여성 억압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나 비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주목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자본주의 제도에만 국한시켜서 보고 있는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은 비판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맑스와 엥겔스는 성적 노동 분업의 최초 형태가 계급 적대감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성별에 의한 차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계급관계에 치중해서만 여성의 지위를 규정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은 자본주의 제도가 여성의 억압을 창출하는 가부장제와의 상호연관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되고 있으며 계급관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과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상호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여권론자인 미첼(Mitchell)은 사회적인 생산에 있어서 소외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억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해 왔지만 이러한 경제적 생산양식과 함께, 재생산과 성성(sexuality) 그리고 어린이의 사회화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등이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결정하는데 관련 되어 왔다고 본다.

따라서 미첼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노동에 뛰어 들어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레스키(Zaresky)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가족에서의 생산기반이 없어지므로 여성은 가정에 남아서 사적인 세계에서 주된 책임을 맡게 된다고 보고, 개인의 사적 생활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허위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는 여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제거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변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회주의 여권론의 입장은 자본주의 관계에서의 전환이 있고 또한 가족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여성의 지위가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급진적 여권론

급진적 여권론에서도 사회주의 여권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차별이 사회제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삼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여권론과의 차이이다. 그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 줌으로써 가부장제가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남성이 우세한 힘과 경제적 특권을 지니는 권력의 체계로서 가부장제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여권론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급진적 여권론에서는 남성의 힘과 권력 및 심리적 발달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급관계보다는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가 더 근본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의 지위가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으며, 적어도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동등한 사회였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란 사회에 따라 다르고, 역사적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단순히 계급 억압으로만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급적 설명만으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급진적인 여권론의 입장은 사실상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도록 발달되어 온 많은 문화적 관습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맥키넨(MacKinnon)은 여성 지배의 중요한 사실로서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들고 있다. 맥키넨은 여권론에 있어서 성이란 맑스 주의자들의 일(work)과 같은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

과 남성은 성의 표출에 있어서 사회화과정 동안에 달리 경험하게 되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존재로서도 자신들을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성은 남성의 권력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영역으로서 강간, 성적 회로, 여성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폭력 등을 통하여 남성들은 그들의 성적 권력을 여성들에게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성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남성의 권력이 표출됨으로 이성간의 성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남성지배를 제도화하는 길이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가 바로 성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성에 있어서 남성지배를 제도화하는 데에 국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가 성의 행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성의 편에 서 왔는데, 이는 남성에 의해서 자주 저질러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온 점 등을 증거로 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국가가 종래의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세 관점 중에서 어느 한 관점이 유일하게 여성의 지위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각 관점은 나름대로 여성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어느 한 관점만으로 여성들이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여권론적 관점들을 잘 병행하여서 사용할 때 우리는 가부장제의 사회구조 아래서 여성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다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불을 꿰매면서

이불흔침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달라 물달라 옷달라 시켰었다

중략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이윤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 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노동자는 이윤 낚은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아불 흔침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 백노아 -

우리들의 생각



기획 시리즈 하나

1. 성정치 - 서구를 중심으로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 제프리 워스, 1994> 요약문

지난 20여년간 산업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형세가 변화됨에 따라 성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결집의 가능성도 크게 강화되었다. 불황에 뒤이은 급격한 경제성장, 낡은 계급적 구분의 와해, 복지주의의 등장과 부분적 상승과 침체가 반복되는 새로운 경기의 형성, 성들간의 관계 및 가족, 지역 공동체 내부의 중요한 변화들은 새로운 사회적 긴장과 적대, 지배와 저항의 형태들을 만들어 냈고, 이는 전통적인 정치형태와 정치방식을 뒤흔들어 놓았다. 여기에 흑인 운동, 여성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저항 형태와 더불어 새로운 저항형태들 - 예컨대 평화운동, 환경운동, 성적 선호와 선택을 둘러싼 여러 저항운동(성정치? 동성애운동?) - 들이 생겨났다.

성 급진운동은 수단 면에서나 목표 면에서나 전혀 통일적이지도, 응집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성 급진운동은 당대의 정치학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고, 새로운 '이해 공동체', 새로운 지지층, 새로운 도덕적 의제를 형성했다. 그 결

과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상당히 확대되었는 바, 이제 정치는 새로운 사회운동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관심 범위 - 지금까지는 그저 사사로운 일로 치부되었던 건강, 육체, 가치, 선택, 쾌락 등에 대한 관심들 - 를 두루 망라하게 되었다.

성차와 성적 분화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투쟁, 이야말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성정치의 의미이다. 하지만 한편 성정치는 우리 문화 내부에서 성의 의미, 우리의 삶과 친교관계에서 성에 할당된 위치, 정체성과 쾌락, 강제와 권력, 선택과 합의 등의 위기가 심화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1980년대 성정치의 핵심적인 역설은, 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 쪽은 좌파지향적 급진사회운동이었는데도 정작 여러 힘과 세력들을 분기시켜 효과적 성과를 쟁긴 쪽은 바로 우파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도덕적 다수'라는 집단은 레이건을 대통령 권자에 앉힌 신동 보수적 동맹군의 핵심적 보조부대가 되어 주었다.

성적 다양성이 끝없이 증대되는 현실

에서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이 성정치의 딜레마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제 이런 복잡미묘한 쟁점을 다룰 때, 많은 이들이 정치, 가치, 그리고 윤리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 요컨대 그 세가지 영역은 근대적 성정치 내부에서 불가분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결국 선택이 강요되고 작용하는 맥락이 문제의 핵심이다. 성적 가치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들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그 사회적 가치 역시 천차만별이다. 즉 집단에 따라 다른, 심지어는 정반대되는 가치질서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족을 분리하고자 획책하는 인종주의적 이민절차에 맞서 가족을 방어하고자 투쟁하는 흑인 여성해방운동가들에게, 백인 여성해방운동가들이 하는 가족 비판은 왕왕 인종중심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이라는 답론은 상이한 개인적 욕구와 목표뿐 아니라 생존수단의 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 다양성과 선택의 우월성이라는 답론을 각각의 고립적인 단자들이 여러가지 선택가능성

가운데서 그 혹은 그녀의 마음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식으로 순전히 개인의 의식적 행동으로 이해될 위험이 다분하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의 성정치학이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듯,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보증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일 뿐이다.

우리는 서구의 성적 현실을 변화시킨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여성과 동성애자들이 새롭게 개인적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성적 욕구와 욕망의 언어, 이는 모두 전적으로 '집단적 자아 실천 collective self activity'이라 부를 만한 집단적 실천의 산물이다.

성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잠재성과 성장을 한정하는 장애물들 예컨대 경제적 착취와 계급, 인종적 억압과 성별 불평등, 도덕적 권위주의와 교육적 불이익, 빈곤과 생활불안이라는 장애물들이 점차 소멸해가는 보다 폭넓은 민주화 과정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실제적인 곤란, 욕구와 이해관계의 실제적 분할, 우열이나 욕망, 의지, 당위를 둘러싼 실제적 갈등이 죄다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대로 성 민주주의 목적은 이런 차이들과 갈등들을 민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적 욕구와 갈망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방책들 - 요컨대 사적인 쾌락과 공적인 정책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 - 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도덕적 다원주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므로써 우리는 그 변혁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기획 시리즈 들

2. 성정치국의 한계 - 총여학생회와 그토록 다른가?

32대 총학생회는 그들의 공약대로 성정치국을 통해 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1960년대와 70년대의 서구사회를 풍미했던 급진 여성해방론의 하나로 제기된 성정치를 한국사회,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그것에 기반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성정치학이 여성해방운동뿐만 아니라 동성애해방운동이나 정치학적 부분으로까지 그 범주가 넓어지고

다양해졌으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성정치란 생소한 단어였으며, 이는 학우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고 신선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서구의 해체주의적 냄새로 인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학우들의 상황에서 성정치국은 그들이 총학의 집행부로서의 역할, 즉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일에 열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제를 준비했는데 이는 학우들보다도 매스컴에서 열띤 취재경쟁이 붙을 만큼의 파급력을 자랑했다.

바로 여기서 총여학생회와 성정치국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첫째, 그 위상과 역할이다.

즉, 총여학생회는 5천 여학우의 대표성을 가진 여학생들의 자치조직이며 이는 여학생문제를 여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총학의 성정치국은 총학의 집행단위로서 총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 여기서는 성정치의 내용들 - 을 사업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표방하고 있는 내용성의 차이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 특히 여학생운동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반면, 성정치국은 성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성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과연 이 둘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지향점의 정확한 표방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운동의 주체 세력의 차이이다.

총여학생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학우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 일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여학생운동의 주체 세력이 바로 여학우 대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코 함께 살아가는 남학우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8대 총여학생회에서 내건 기치가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사회속에서 높아지는 운동'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문제를 안고 살아 가고 있는 억압은 남학우들보다 여학우들에 더욱 그 초점이 맞추어짐을 명확히 해야 한

다. 우리가 보편적 시각으로 이야기했던 것의 대부분은 바로 남성중심의 사고에 기반하여 아버지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한번도 자신들의 조직을 건설해 본 적도 없으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겨우 몇 십년 동안에서야 여성해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정치국은 총학의 집행단위로 존재하면서 뚜렷한 운동의 주체 세력이 없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총여학생회는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논리까지 가능하다. 여학생들의 자치기구가 없



기획 시리즈 셋

3. 성정치운동의 한계

어도 성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어떤 학생회에서든 성에 대한 대담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총여학생회와는 사전에 연계관계를 갖지 못했다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 학우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 나름의 표현방식으로 이러한 수 많은 이야기들을 형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용적인 부분에서 '성'의 의미의 모호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성'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sex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gender일 때도 있으며, 결국 통합적인 sexuality를 의미해 버리고 말다가도 '침실'과 '사적인 영역의 공적인 영역으로의 변

화'에서의 경우처럼 다시 sex로 환원되어 버리기도 한다. 즉, 우선 성정치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케이트 밀레트의 경우처럼 확실히 sex인지의 여부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 성정치 문화제를 마치며 쓴 자보에서 보면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성을 sex와 gender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을 확인하면 그것이 아니라 "성을 이제 gender로 부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성정치운동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성정치라는 범위가 기존의 논의에서보다 훨씬 확대됨으로 인해 여성운동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정치라는 것이 위에서 그 '성'이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결국 어떠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즉, 늘상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서 문화제의 형식을 빌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혹은 학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해결을 어

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있어서 기존의 총여학생회의 방식과 얼마나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세째, 성정치 운동은 그 지향과 목표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여성운동이나 여학생운동의 지향과 목표는 그나마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여성 해방, 인간 해방으로 이야기되는 기존의 억압과 착취에서의 해방과 이를 이루기 위한 변혁적 운동성 등이 주 테마로 다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성정치 운동은 성해방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또 다시 모호한 관념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이 가지는 성적 주체성은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그것의 제반 상황을 얻기 위한 투쟁 - 서구사회에서의 사례에서처럼 성정치의 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 예를 들면 여성해방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전반적 토대마련 등 - 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살아남기 위해, 혹은 여성

운동을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제반 조건은 참으로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계급 - 여성이 노동자일 수도 자본가일 수도 있으므로, 민족적 문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혹은 그들이 일관된 한 가지 주장, 즉 '성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한한다면, 결국 운동으로서 쟁취해내야하는 지향과 목표가 있다기 보다는 비판 세력의 하나로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네째,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으로 바로 성정치 운동을 들고 나오므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척박한 여성운동의 현실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

누구나 인정했듯이 우리 사회의 여성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한 상태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뿌리깊은 가부장제의 역사와 더불어 이식된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중적인 억압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파시즘적인 군부독재의 정치적 경험이 더욱 여성의 삶을 옥죄어 왔던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운동단체들, 혹은 여학생회의 그동안의 눈물겨운 성과들을 너무 쉽게 평가해 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연대해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여성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는 성정치운동을 내세워 이 사회의 여성문제의 핵심을 오히려 흐려놓지는 않았는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물론 하나의 담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어야 할 다양한 시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연대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하게 됨을 각인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회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패소하고 있고, 세계여성대회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실천의 문제로 출발하자.

나의 문제, 나의 현실에 기반한 여학생운동의 총여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내가 본 성정치 문화제

얼마전 우리 학교에서는 학내에서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의 외부 언론을 통해 학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성정치 문화제가 있었다. 내가 성정치 문화제를 본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주최측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고 노력했다. 도서관 입구나 민주 광장에 붙은 대자보 논쟁(기독교학생연합 소속의 한 학우가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박한 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져 있었다)이라든가, 문화제 마지막 날 부서지고만 민주광장 중앙의 조형물(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 속에서 남녀성의 상품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듯했다), 그리고 성정치 문화제의 자료집 등이 내가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성정치 문화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잠깐 잠깐 읽어본 자보를 통하하면, 성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성에 얽혀있는 정치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말 그대로 성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신체, 성이라는 것을 둘러싼 억압적 굴레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들, 조형물(심지어는 콘돔도)들을 설치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내 앞에 서 있던 한 남학우는 농담으로 어디 한번 만져 보자는 식으로, 혹은 툭툭한가 보자는 식의 장난끼 섞인 태도를 보였고, 한 여학우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 버렸다. 한 친구는 내게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되는 끔찍하고 선정적인 성범죄 관련 기사가 또다른 간접 강간이 되는 사회에서 이는 또하나의 간접 성폭력이 아닐까?" 라고 열을 내며 말했다.

또 한 후배는 성정치 문화제 기간 중에 상영된 영화를 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중간에 나와 버렸다고 한다. 그 영화를 통해 내 후배가 느낀 것은, '동성애나 수간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의 일대 혼란이었다.

총학생회라면 연세 안의 모든 학우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 단지 그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설파(?)하려는 자세가 과연 연세 학우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대변인, 심부름꾼을 자처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일 것인가?

또 한가지 내가 자보와 자료집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이론이야.' 라는 것이었다. 실천이 아

닌, 학문의 한 분야,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성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가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것이 성을 신비의 베일 속으로 감추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성을 까발려 버리자는 식의 논리보다는 성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세우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욱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신정숙/문학동네



책이야기

그래서 너를 안는다

김인숙/청년사

인간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 어린 시절의 본질적인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에야 그리고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보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너를 안을 수 있게' 된다. 작가는 이 책에서 계집아이같은 사내아이와 사내아이같은 계집아이의 삶의 행로를 보여주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으로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

김별아/답게 출판사

주인공은 '왜 아무도 성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하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책은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 풍조로 인해 올바른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피해되고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해 피해받고 상처입으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여성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철저히 묵살하는 반면에 남성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성문화 속에서 과연 올바른 사랑이 가능할 것인가.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솔 출판사

외동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작가 자신의 일기를 독자들에게 공개한 작품이다.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성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넓이에 대한 단상들을 읽으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어머니라는 제3의 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기만 하는 우리들의 어머니에 대해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된다.

깊은 슬픔

신경숙/문학동네

서로의 등만을 바라본 채 끊임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은서', '완', '세' 라는 세 젊은이들의 사랑이야기이다. 작가는 줄거리나 소재 중심의 문학을 문체와,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울림'을 통해 새로운 각도로 옮겨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월

김형경/문학동네

이 작품은 한 여자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양친의 이혼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문학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그 남자'의 집요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여자'를 괴롭히지만, 서른을 넘어서며 그녀는 안정을 찾게 된다. 어느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세월이다. 시간이 퇴적층처럼 쌓여 정신을 윤곽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95 <오늘의 작가상>

길 위의

이예경 장편소설

<가족>이란 무엇

비밀에 선 한국의 경계에 던지는 서





영화 이야기

완령옥

<감독:관금봉(1991, 홍콩) 주연:장만옥>

1930년대 한시절 중국 스크린을 풍미했던 여배우 완령옥, 그녀의 영화와 사랑에 대해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어지는 이 영화는 당시 중국 사회의 도덕과 관심의 율가미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장만옥의 연기가 일품이다.)

미나 타넨바움

<감독:마르틴느 두고브송(1994, 프랑스)
주연:로메인보링어>

엘자 실버스타인 미나라는 한 여성의 삶, 그보다는 여성이었던 한 화가의 삶, 더 나아가 화가였던 한 인간의 삶이 흘러가는 듯이 이어지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외로운 단면을 느낄 수 있게 되며, 보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그 파문은 더 깊이 번져갈 것이다.

벤디트 쿤

감독:세까르 까뿌뜨(1994, 인도) 주연:시아 버스와 스

1957년에 태어난 천민 여성 풀란 데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인도 내 상영이 금지되었다. 이 영화에는 아직도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강간당하고 유린당하며 고통받는지, 갇힌을 조직하고 이끄는 과정에서 어떻게 현실에 맞서 가는지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사의 후에

폭력적인 가정이 있는 가족의 일상사가 이 영화의 중심 줄거리이다.

큰 딸이 아버지의 친구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인해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가졌던 환상과 집착을 버리고, 아내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결국은 남편을 떠나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 이 영화는 좁게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뉴질랜드 내에서 가정 내 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가족과 가부장적 질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해준다.

개같은 날의 오후-감독:이민용(1995, 한국)

아내를 구타하던 한 남자를 집단폭행하고 살해함으로 인해, 경찰에 쫓겨 옥상으로 도망가 3박 4일동안 투항하는 10명의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여성을 넘어서서 노인, 게이 등 소외계층을 감싸는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의 여성영화가 갖는 약점을 탄탄한 구성과 절묘한 복선으로 보완했다.





61 여성의 힘 · 변혁의 시작





둘.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제한을 철폐한다.



셋. 생활속에서 연세 여학우와 함께하는 종여학생회가



넷. 사회속에서 연세 연성의 힘을 모은다



다섯. 연세 여학우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여섯. 이 땅 여성민중의 고통을 나누는 연대활동을



여성의 힘, 변혁의 시작!



물결의 일렁임

- 선거운동원 한마디 -

물동(자칭-물언개, 간호92): 권력의 뒤편에서 아무리 권력이 좋다지만 나 좀 그만 구박해줘. 나도 한 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애들이 빨리 T값 좀 주라. 떨어진 똥!!!!

물슈(자칭-무슈, 국문94): 우리가 떨어뜨리는 물방울 하나 하나가 만드는 파장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만화 그리나라 얼렁덜렁해진 서슈..

물만두(불문93): 만두는 다양한 재료를 밀가루 옷 안에 꼬옥 품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말랑한 물만두처럼 외유내강!!!

물식(기계94): 문화선동대에서 마당쇠를 맡을 자랑찬 우리의 물쇠?

물오리(간호94): 농땡이는 나 혼자 다 친 것 같은데, 힘든 척은 많이 한 듯.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반면 고마움도 느낀다. 우리, 정말 열심히 했다.

물난리(산시스95): 총여 선거에서 신유정, 최인아의 물난리를 기대하시라.

물빛(불문94): 빛나리 빛나리 물결 위에 찬란히 빛나리!

물법석(법학95): 선본방에서 법석을 좀 떨었더니 이런 별명을 얻고 말았다. 육... 하여간 항상 떠들썩하고 활기에 찬 사람들이 좋다.



임동일 [이웃물]

물벼락(법학95):선거가 만약에 여름에 있었다면 난 무지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구요? 지난 여름은 무지막지 더웠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계절을 잘못 타서 씨얼렁하다는 핀잔만 듣고 있지요...잉...

물천재(건축95):누나들... 그리고 애들아, 나 지금 술 먹었다? 여기에 무슨 말 써야 되는 거야?

물방개(국문 93):난 진지하게 쓸래! 사람들의 고마움, 사람들과의 즐거움. 대동이라는 걸 배운다. 같이 해 준 똥, 만두, 오리, 빗, 슈, 난리, 법석, 쇠, 벼락, 천재 그리고 걸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래도 선전, 정책, 문화, 비서 같은 딱가리 일도 열심히 한 멋진 "방개"아참! 물코가 빠졌다. 고마워, 물코(물코는 총여 TV 유세 때 나온 인형을 가리킴)

